

● '88년을 보내며

방역사업을 돌아본다



박근식

(가축위생연구소 소장)

가축방역사업은 인간이 동물과 더불어 삶을 같이 하면서 시작되었다.

근대 가축방역사업의 기원은 18세기 불란서를 비롯해서 유럽 각국에서 우역(牛疫)발생을 계기로 방역기구가 설립되어 운영된 것에서 비롯한다.

한국에서는 1911년 우역혈청소(현 가축위생연구소)가 설치된 것으로 부터 시발하였다. 최근 25년간 국제식량기구(FAO)와 국제수역기구(OIE)에서는 가축질병 방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제간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1980년에 외래성 가축질병 방제를 위한 긴급방역조직기구의 구성과 야외 실험실에서 수행할 구체적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할 것을 각

국에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미 미국, 호주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사업으로 만족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소를 중심으로 한 방역체계와 사업이 옛부터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외래성 질병을 제외한 국내질병(Endemic Diseases)에 대한 방역은 비교적 효과적이며,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니 식용가축 중 돼지와 닭의 사양두수가 크게 늘어나고 소비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한 양축농장의 밀집화와 집단사육은 종래의 방역제도나 예산·기술·방역기구나 그리고 정부만의 방역의욕으로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실례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08년에 한국에 첫 발생 보고가 있었던 돼지콜레라(HC)는 거의 1세기 동안 근절되지 않고 일정한 주기로 대유행하여 왔던 점과, 그 이외 1950년대에 발생 확인된 돼지전염성위장염(TGE), 톡소플라즈마, 일본 뇌염을 비롯해서 한국양돈의 급성장과 더불어, 1970~1980년대까지 새로 검색된 돼지마이코플라즈마병,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돼지위축성비염(AR), 돼지적리, 돼지파보바이러스감염증, 돼지에페리드로준, 파스튜렐라증, 렘토스피라, 돼지 흉막폐염 등 수많은 돼지전염병이 검색되고 있다. 이들의 질병은 종류에 따라 다르나 적어도 20~40%가 양돈장에 상재화되어 있다.

질병에 의한 피해가 양돈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돼지 생산성은 물론 식육가축임으로 이들의 질병 발생은 소비자에게도 공중위생학적 측면에서도 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 와서 돼지의 밀집사육으로 비롯되는 만성소모성질병은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피해를 초래 이를 막기 위한 약품의 사용은 축산식품이 “약에 저린(藥漬) 돼지고기”라고 소비자로 부터 혹평까지 받게 된다. 이들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다루기로 하고 1988년도에 돼지질병 발생중 가장 중요하고 관심사인 돼지콜레라(HC)와 1987년도 상륙한 돼지오제스키병(AD)에 대한 방역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종래 가성광견병으로 불리웠던 돼지오제스키병의 첫 발생보고(1987년 7월)는 한국 양돈업계에 충격적인 뉴스였다. 특히 이 병은 검색되기 이전부터 해외질병으로 취급 국내 잠입 발생을 우려하면서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 병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진단액을 개발하여 1980년부터는 야외 조사를 실시하여 오던중 1987년 7월에 경남 양산군 W농장에서 최초로 이 병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차 후 이 병에 의한 양돈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적용하여 9백 54두 전두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살처분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년 11월에 화성군 H농장에서 제2의 발생을 확인하였으며, 국내에서 분리된 바이러스가 대만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유전형의 독주하였음이 입증되었다. 그 동안 대만에서 종돈을 수입한 농장 6개소를 포함해서 주요 종돈장 12개소 등에 대한 세밀한 검색이 실시되었으며, 이들 농장중 감염율이 높은 농장은 전두수 살처분하는 방역조치가 이루어져 정부의 강력한 방역의지를 표현하였다. 한국양돈의 장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가 방역에 적극 협조한 분들의 결심에 양돈농가에

서는 깊은 감사와 위로 및 격려가 있기 바란다.

1988년에는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의 돼지오제스키병의 근절을 위한 노력은 가일층 높아져 농림수산부에서는 1988년 1월 12일에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요령”을 발표하였고, '88년도에 전국종돈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발생농장을 검색하기 위해서 오제스키병 진단키트 총 1만 7천 4백두분을 생산하여 인천을 비롯한 10개 시, 도에 배정해서 각 시, 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색을 수행하여 오던중 경기도 양주군 양돈단지에서 오제스키병의 발생이 확인되어 방역에 임하고 있다.

특히, 돼지오제스키병은 그동안 해외질병으로 알려져 이 병의 침입을 크게 우려하였던 질병중의 하나였다. 이번 이를 계기로 이 병이 국내 침입된 경로가 밝혀져 외래성질병 침입경로를 완전히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일단 발생시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미 사전에 마련한 긴급방역대책과 세부계획에 의거 일사분란하게 확산전파를 막고 속전속결로 완전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 특히 외래성질병 방제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는 검색·살처분에 있어서 보상금 문제와 검색시 양돈농가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방역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초동방역의 의의가 없었고, 가축의 이동제한 등의 방역실시반의 업무를 도와주는 유관기관의 협조가 아쉬웠다. 특히, 돼지 오제스키병의 특성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생하는 질병으로 항체가 없는 농장에 침입시의 이 병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상재화 되었을 경우 면역기능에 장애를 주어 백신을 접종해도 백신의 효력이 좋지 않는 결과가 초래된다. 우리나라는 돼지콜레라 상재지가 되어 있어 이 병이 전국에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그동안 쌓였던 공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격이되고 한국 양돈의 국제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양돈농가는 개인의 손실보다 양돈산업 전체를 걱정하여 방역에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